



즉시 배포용: 8/21/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 **CUOMO** 주지사, 뉴욕의 청년기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다

**675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Buffalo, 롱아일랜드, 뉴욕시, Syracuse 지역에 제공되고 2015년 말까지 Albany, Rochester, 뉴욕시에 추가 지역이 예정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정신건강실이 새로 떠오르는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몹시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진단 받은 사람들은 대개 청년기에 첫 번째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경험합니다. 현재 연간 주정부 및 연방정부 기금으로 675만 달러를 마련해놓고 있는 정신건강실은 뉴욕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병 치료, 취업, 교육서비스, 가족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OnTrackNY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조기 개입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이 종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고 더 많은 뉴욕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주신 우리 주 및 연방정부 파트너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뉴욕의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질병들처럼 조기 개입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여 젊은 뉴욕주민들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 종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OnTrackNY는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용커에 있는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곳들은 특정 시간에 약 160명의 청년들을 돌보았습니다. 정신건강실은 현재 Buffalo, Farmingville, Syracuse에 있는 새로운 다섯 곳과 맨해튼의 다른 두 곳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총 175명의 청년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또 다른 세 곳의 OnTrackNY 지역은 Albany, Rochester, 뉴욕시를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기존 자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신분열증 증상이 발현되는 뉴욕주민이 약 3,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두면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긴장된 가족 관계,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노숙, 유폐,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정신병을 치료하지 않고 보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흔히,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로 이어져서, 개인과 가족에게 고통스런 인적 비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도 상당한 금융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2013년에 시작된 OnTrackNY 프로그램은 최근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회복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팀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TrackNY은 정신병을 앓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학교, 직장, 사회관계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공유, 청년 친화적이고 환영하는 환경, 그리고 유연하고 접근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포함한 돌봄(care) 원리를 따릅니다.

“OnTrackNY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확인 및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혼란과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OnTrackNY의 확대는 기존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고 뉴욕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정신병 치료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정신건강실 장관인 Ann Marie T. Sullivan 박사 겸 의학박사가 말했습니다.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nTrackNY 프로그램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뉴욕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취약한 우리 주민들의 일부가 돌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확대 서비스입니다”라고 Schumer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미 상원의원 Charles E. Schumer.

Carolyn Maloney 주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치료와 개입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에게 중요합니다. OnTrackNY 프로그램의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노숙 및 유폐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리며, 정신건강실을 위해 연방정부의 강력한 자금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Brian Higgins 주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에 OnTrackNY를 열게 되면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정신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뉴욕 서부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방 및 주의 합작 투자는 중요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교육 및 경력 목표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Lee Zeldin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과 가족들이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몹시 필요하는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과 함께 Suffolk 카운티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치료 서비스 확대를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확대는 질병 확인 및 치료 과정을 빨리 진행하고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OnTrackNY은 뉴욕주 정신건강실과 미국약물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OnTrack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practiceinnovations.org/CPIInitiatives/OnTrackNY/tabid/202/Default.aspx>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